

기고

김 용 호 여수소방서장



본격적인 휴가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하려면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산이나 바닷가, 유원지, 계곡 등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장소라면 피서객들로 붐비고 있다.
더군다나 본격적인 여름방학 및 휴가철을 앞두고 물놀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 여름철 전국적으로 물놀이로 인한 사망자는 총 165명이며, 휴가기간인 7~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이를 원인으로 살펴보면 수영미숙 51명(31%), 안전부주의 36명(22%), 음주수영 28명(17%), 높은

파도(급류) 22명(13.3%) 순이며, 장소별로는 하천·강 87명(52.7%), 바닷가 30명(18.1%), 계곡 24명(14.5%), 해수욕장 21명(12.7%) 순이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은 국민 모두가 물놀이 사고예방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가장 중요하

로 물놀이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수영금지 등 위험표지판이 있는 장소에서는 물놀이를 피해야 하며, 현지 안전요원 또는 안내표지에 따라 사고 발생우려가 없는 안전한 지역에서 물놀이를 즐기도록 하자.

또한 입수 전 바다의 상황을 파악하고 식사 직후, 수면부족시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음주 후 수상활동은 절대 하지 않으며 충분한 수분섭취 및 햇빛 과다 노출에 유의하자.

매년 여름 피서철에 수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물놀이 안전사고로 귀중한 목숨을 잃고 있는 실정이다.

바다나 하천, 강, 계곡 등을 찾을 때는 주변의 위험요소 등 정보를 사전에 파악해 두고 물놀이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 즐겁고 기억에 남는 여름 피서철이 되었으면 한다.

社 說

장애인 시청각 애로 해소해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특히 시청각 장애인에 대한 영화 관련권 등은 정부가 앞장서서 실현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단체가 시·청각 장애인을 위해 모든 영화관에서 한글 자막과 화면 해설을 제공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다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해 보인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최근 영화관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한글 자막과 화면해설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시·청각 장애인의 영화관련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월 '영화관의 영화자막 미제공에 따른 청각장애인 편의제공 소홀' 진정 사건을 기각한 것도 비판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는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편의 제공을 해야 하는 대상은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 이지 영화관이 아니라며 이 사건을 기각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에 영화자막 및 화면해설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청각 장애인의 영화 볼 권리는 장애인차별 금지법에 명시돼있다. 장애인들이 사회로부터 보다 덜 차별받으면서 살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사회가 선진국가라 할 수 있다. 장애인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다.

인권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진 권리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일부 소외받는 계층이 사라져야 함은 당연한 이치다.

인권위는 정부가 아닌 민간사업자들에게 최소한 경과라도 내려서 시·청각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영화 볼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말을 아끼시라

말이 많을수록 자주 궁색해지니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만 못하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봅시다. 요즘은 자기 홍보(PR) 시대에 살면서 더욱더 많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속이 깊은 사람은 알고도 모르는 체 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은 소리로 떠들어 댁니다.

인생에서 격은 어려움의 절반은 모두 선부터 말과 행동에서 비롯되기 십상입니다.

때문에 어떤 말과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먼저 그 말을 하려는 순간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 번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아는 체하고 너무 많은 말을 쏟아 내면 분명히 실수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면서 말을 아끼는 태도가 필요한 법입니다.

타인 앞에서 말이 많아지면 실수가 따르는 법이며 결국 두 가지 때문입니다.

남 흉을 보거나 내 자랑을 하거나입니다. 결국 왜곡된 자기가 나만을 세상 제일의 가치를 만들기 위해 남 앞에서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상대하는 사람들은 우리와 처지가 비슷하거나 높은 사

람이 대분입니다. 처지가 비슷한 사람 앞에서는 잘나 보이기 위해 처지가 낮은 사람에겐 그 나은 처지를 행세해 보기 위해 처지가 높은 사람에겐 비슷한 사람보다 자기가 나음을 보여주기 위해 말을 많이 합니다.

정말 존중하고 마음이 통하는 사이는 무언의 대화로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마음속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말을 아끼려면 가능한 상대방의 일에 참견하지 말아야 하며 어떤 일을 두고 아무 생각 없이 무책임하게 상대방에 대해 험담을 늘어놓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꼭 많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성실한 사람은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도 성실로 자신을 무장한다면 많은 말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평화롭고 조화로운 삶을 원한다면 남 앞에 자주 궁색한 표현을 하지 않은지 또한 타인 앞에서 자신의 잘남이나 타인의 못남을 이야기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속담처럼 자신이 많은 말을 할 때는 꼭 하기 전에 체로 걸러 좋은 말만 하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은 하지 않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국중균 / 광주북부소방서 현장지휘담당

휴가철, 차량상태 등 꼼꼼히 체크해야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 자동차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된 지 오래다.

주 5일 근무제 시행과 웰빙 바람으로 인해 주말이나 공휴일에 산, 유원지, 놀이공원 등을 찾는 가족동반 나들이객들이 많이 보인다.

특히, 휴가철에는 장거리 운전을 해야 하므로 안전한 여행을 하기 위해서 차량 운전 전 운전자의 주의사항을 사전에 꼼꼼히 체크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요구되고 있다.

우선 운전자 자신의 피로상태를 확인하자.

주말이나 공휴일에 여행을 계획했다면 평소보다 더 일찍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도 평소보다 조금 늦게까지 자도록 하며 차 안에서 가볍게 기지개를 펴거나 스트레칭을 하고 졸음의 정도가 심하다면 졸음쉼터나 휴게소에 잠시 눈을 붙이고 운행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차량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자. 타이어가 펑크 나지는 않았는지, 공기압은 적정인지를 정비해 보고, 엔진오일 등은 충분한지, 연료는 충분한지, 사고 시에 대처할 비상표지판, 카메라 등은 잘 부착되어 있는지 점검하자.

아울러, 차량에 탑승한 가족들의 안전벨트를 필히 확인하자.

안전벨트는 사고 시에 피해를 줄여

주고 자녀들이 차내에서 무분별하게 이동하는 것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어 운전자의 주의가 다른 곳으로 쏠리는 것을 막아주기도 한다.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교통사고 발생 시 안전벨트 착용유무에 따라 인명피해가 크고 적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귀찮거나 습관화 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체를 보호해주는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제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특히, 어린 자녀들이 좋은 습관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올바른 안전벨트 착용습관이 필요하다.

끝으로, 차량용소화기를 비치하자. 초기화재시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의 효과에 비견된다. 그만큼 신속한 초기진화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대목이다.

특히, 주행 중 화재는 대형사고로 확대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당황하지 말고 도로변 등 안전한 장소에 정차 후 엔진을 정지시키자.

또한 소화기 등을 활용하여 발화점을 향해 신속히 방사하고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 화재차량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대피하여 소방서와 경찰서에 알리고 다른 차량의 접근을 막아야 한다.

한선근 / 보성 119안전센터 소방위

생활정보전화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응급질병상담 1399
▲미아·가출인 신고 182
▲여성 긴급전화 1366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응급의료센터 1399

긴급전화

- ▲기상예보 131
▲법률구조상담 132
▲인광 알콜응급상담센터 222-5666
▲광주 남성의전화 673-9001
▲광주 여성의전화 363-7739
▲수도 고장신고 121
▲전기고장 신고 123
▲가스사고 신고 383-0019

호남신문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address, phone numbers, and website.

Advertisement for '换位思考' (换位思考) featuring two people and text about understanding others' perspectives.